

매스·콤活動을 통한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知識人の 役割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rough Mass Communication Activities

研究部長 社會學博士 金 圭 煥

(1)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하나의 社會的 現象은 近代社會의 成立에서 그 根源을 찾을 수 있다. 「르네상스」, 「프랑스」 革命, 産業革命을 거쳐 封建社會가 붕괴되고 資本主義的 市民社會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人口의 增加, 都市文明의 發展, 教育의 普及, 科學技術의 發達등 여러 條件의 성숙은 近代新聞을 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歐美 先進社會에서는 이미 17世紀 後半期부터 18世紀에 걸쳐서, 日刊新聞이 발간되었다. 19世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의 유력한 手段으로서의 地位를 確固히 하게 된 新聞은 大衆의 文字解得率의 增加, 教育의 普及, 政治意識의 向上에 寄與하면서, 近代化를 促進시키는 중요한 役割을 遂行했다.

韓國도 例外는 아니다. 韓國에 있어서 最初의 近代의 新聞이라고 할수 있는 『漢城旬報』가 發刊된 것은 1883年이다. 이 新聞이 發刊된 그 이듬해에 『韓國近代化 氣運이 직접 現實的 運動으로 表現되어 폭발』⁽¹⁾한 甲申政變이 발생했다. 이 宮中「쿠데타」는 外國軍隊의 介入으로 달미암아 三日天下로서 挫折되었으나, 10年後인 1894년에는 身分階級の 廢止, 文武尊卑와 公私奴婢의 廢止, 寡婦改嫁의 許可등 人權의 確立에서 비롯하여 政治, 經濟, 社會의 모든 分野에 걸친 制度, 慣習上의 全面的인 改革을 企圖한 王政에 의한 近代化 革新政策이 發布되었다. 이 改革(甲午更張)이 있은지 2年後인 1896년에 最初의 本格的인 近代紙인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이어서 『皇城新聞』 『帝國新聞』 『大韓每日申報』가 發刊되었다. 『漢城旬報』는 日本의 影響을 받은 開化思想을 背景으로 한 官報의 形式으로 民衆啓蒙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독립신문』은 美國의 民權思想과 近代의 民族主義, 科學精神을 背景으로 삼은 最初의 民間新聞이었다. 『帝國新聞』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등도 이러한 近代化運動에 呼吸을 같이 하는 한편 外勢에 의해 國家의 獨立이 위협을 받게 되자, 民族의 自主性を 고취했다.

『독립신문』과 그 신문의 創設者인 徐載弼博士의 役割은 韓國言論의 歷史뿐만 아니라, 韓國의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찬란한 里程標를 마련했다.

徐載弼博士는 前述한 1883년의 改革運動에 失敗한 후 美國으로 亡命하였다. 貴族出身인 그는 당시 韓國사회의 因襲인 技術教育 賤待를 박차고 西洋醫學을 選擇하여 苦學끝에 「조지·워싱턴」大學의 醫學博士學位를 얻고 美國女性和 결혼했으며 美國의 獨立精神과 그 生活樣式을 體驗했다. 그러나 徐博士의 改革과 獨立을 위한 정열은 그의 安定된 生活과 夫人까지도 저버리고 祖國

(1) Herbert Passin; "Writer and Journalist in Transitional Society" from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Development, ed. by Lucian W. Pye, p. 97.

4 매스·콤 활동을 통한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知識人의 役割

을 다시 찾게 했다. 1896년에 歸國한 그는 傳統的인 價値體系와 態度를 버리지 못하는 國王이나 政府를 相對로 自身の 計劃이나 理想을 國政에 反映시키기 보다는 民衆을 상대로 직접, 이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自己의 義務라 생각하고 그 方法으로서 우선 新聞을 發刊하여 改革 獨立운동을 展開키로 決心했다. 政府官吏들을 이해시켜서 國庫補助金を 얻는데 성공한 그는 순국문 新聞으로서 그 自身이 造版·印刷까지도 指導하면서 1896年 4월 7일 「독립신문」(THE INDEPENDENT) 第1號를 創刊했다. 純國文을 사용한 것은 當時의 出版등 知的產物이 社會上層에 의해 獨占될 것을 是正하여, 男女·上下 貴賤의 구별없이 읽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劃期的인 試圖였다. 英文版 創刊號 社說에는 “the interest of Korean people” “by the Koreant people” “Korea for the Koreans” 이니 하는 表現이 驅使되고 있으니 이것은 이 나라의 民主主義的 近代化의 先驅의 役割을 의미하는 것이다. 徐博士가 창간한 「독립신문」의 編輯方針을 紙面에 의해서 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原則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封建的인 모든 弊習을 脫皮하고 人權의 존중을 위한 覺醒과 이를 위한 大衆教育, 둘째로, 衣服, 飲食, 衛生 등에 관한 科學的 知識을 普及시킴으로써 生活樣式을 改善하고 合理化시키는 것. 그리고 셋째로, 頑固한 保守세력에 抵抗하여 不正腐敗를 批判報道하는 동시에 富國強兵으로서 國家의 自主獨立을 達成시킨다는 것이었다.

徐載弼博士에 관해서는 많이 言及했다. 그러나 우리는 韓國近代化운동의 先驅者의 한 사람이 그의 理想을 實現시키는 方法으로써 모든 努力과 犧牲을 바치면서 韓國 最初의 近代的 新聞을 創刊했다는 事實은 特記할 만한 하나의 「케이스·스터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韓國의 近代化를 論할 때, 특히 知識層의 近代化운동에 注目할 경우에 新聞, 雜誌, 「라디오」, 映畫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知的 「엘리트」들의 活動에 넓이와 깊이는 아무리 強調해도 誇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韓國의 近代思想家 烏山 安昌浩선생은 韓國의 近代化를 다음 세가지 意味로 해석했다. 첫째로, 近代化라는 것은 洋服을 입는 것, 즉 西歐化이며, 둘째로, 科學技術의 導入과 傳統的인 農業構造를 改革하는 것, 즉 工業化이며, 셋째로, 民族의 自由 즉 反植民主義운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指摘했다. 이것은 近代化의 概念에 관한 하나의 素朴한 展開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세번째에 지적한 民族獨立운동이다. 이러한 事實은 韓國의 近代化를 論할 때, 모든 分野에서 가장 基幹的인 要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에서는 近代化의 概念자체가 歐美的 그것에서 發想되고 거기에 立脚해서 政治的·經濟的 社會的·現象이 해석되고 分析되고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歐美的 學者들이 말하는 産業化·都市化·所得(富)의 增大·教育水準의 向上, 내지는 個個人的 價値觀과 行動樣式의 合理化等等은, 물론 우리와 같은 後進社會에서 다 같이 追求되어야 할 目標인에는 틀림없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根本的인 「테마」는 前述한 바 近代化를 위한 各種의 活動을 可能케 하는 制度的이며 外形的인 條件의 確保가 不可缺하다.

다시 말하자면, 韓國과 같이 近代化운동이 막 싹트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外來帝國主義세력의 侵略을 받아 바로 植民地化된 社會에 있어서 모든 分野의 正常的인 發展이 처음부터 阻止 내지는

歪曲된 경우에 있어서 近代化는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諸障礙를 除去하는 길——즉 反殖民地운동—— 그 自體가 바로 가장 深刻하고 切實한 近代化의 方法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더군다나 日本의 한국에 대한 統治政策은 다른 植民國家의 他民族支配政策에 比해서 다음과같은 特徵 때문에 近代化를 위한 韓國民의 努力을 훨씬 苛酷하게 방해했다. 즉 強大한 權力에 의한 中央集權의 專制制度로서 日本人에 의한 直接統治를 加하는 한편, 이른바 同化政策에 立脚하여 文化的, 社會的으로 完全한 日本化를 목표로 삼아 韓國의 民族文化를 抑壓했다.

이와같은 情勢 밑에서 經濟·政治·社會의 自由로운 近代의發展은 難望이었는데 거기에 덧붙쳐 日本은 韓國의 經濟的·政治的·社會的·近代化努力을 故意的으로, 때로는 武力까지 使用하면서 억압했다. 왜냐하면, 韓國民의 主體的인 發展은 그들의 至上目標인 日本에의 永久的인 隸屬을 위해 不安한 要因으로 看做되었기 때문이다. 社會面에서만 고드라도 傳統的인 諸價値體系와 制度·慣習을 溫存시키고 個性의 尊重과 合理的인 思考方式을 위협시 하였고 젊은이들의 科學研究의 機會를 封鎖하였다.

國內外에서 다행히도 高等教育을 받은 制限된 人員數의 知識層들이 日本統治 밑에서 그나마도 祖國의 近代의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民衆의 教育, 文化水準의 向上이었다⁽²⁾. 그들은

(2) 東亞日報社說의 (A) 主題와 (B) Key Symbol 에 관한 內容分析結果는 다음과같다.

(A)	社說主題	年								
		1929 11月·12月	'30 9月·12月	'31	'32	'33	'34	'35	'36 1月·8月	
統治政策	總督政治	1件 1.9%	2 1.6	13 3.3	18 4.9	3 0.8	2 0.5	1 0.2	1 0.4	
	本國政府政治	0	6 4.8	1 0.3	1 0.2	1 0.2	0	2 0.5	0	
	個人의 行政	23 45.9	47 37.3	148 37.8	129 35.2	144 41.0	129 35.8	92 25.5	65 28.2	
民族運動에 관한政策		7 13.7	7 5.6	34 8.8	16 4.3	8 2.4	30 8.4	15 4.2	22 9.5	
教育·文化		2 3.9	8 6.3	30 7.6	32 8.8	28 8.0	55 15.3	61 17.0	36 15.6	
經濟問題		3 5.8	38 30.1	18 4.6	28 7.6	18 5.1	11 3.1	14 3.8	4 1.7	
社會問題		2 3.9	0	15 3.8	13 3.6	17 4.9	12 3.3	19 5.2	15 6.5	
社說總數 및 (%)		51 100%	126 100	391 100	367 100	351 100	360 100	363 100	231 100	

(B)	Key Symbol	年								
		1929	'30	'31	'32	'33	'34	'35	'36	Tot.
	獨立	—	—	—	—	—	2	1	—	3
	農民運動	—	—	1	—	—	—	—	—	1
	自治	—	—	1	—	—	—	—	—	1
	團結	—	1	—	—	—	—	—	—	1
	迷信	—	—	1	1	1	2	2	2	9
	生活改善	—	—	—	—	—	2	—	—	2
	文盲退治	—	—	—	2	3	2	3	—	10
	教育熱	—	—	—	—	—	—	1	2	3

民衆의 覺醒과 知的·倫理的 發展이 終局的 目標인 自主獨立을 達成하는 途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擇했다가 고다도 오히려 日帝에 대한 抵抗에 의한 國權의 恢復이 점점 곤란해져 가는 과정에서 時間을 要하나 政治性이 적은——따라서 直接的인 억압을 받을 可能性이 적은——目標을 採擇했던 것이다. 情勢가 더욱 곤란하게 되는 1930년 이후의 韓國知識人들은 극도로 制限된 自由를 行使하면서 發行이 許容되고 있던 2·3個의 新聞과 몇개의 教養文學雜誌 그리고 한 두개의 教育機關을 中心으로 民衆啓蒙 및 文化活動을 통한 韓國의 近代化운동——이것을 間接적이고 迂廻的인 운동으로 생각한 知識人들이 많았지만——을 간신히 이끌어 갔다.

가장 代表的인 日政下의 民族紙인 東亞日報 및 朝鮮日報의 성격을 一瞥하면, 東亞日報를 創刊한 金成洙씨는 教育事業을 經營하던 當時의 몇 사람 안되는 民族資本家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日本에서 教育을 받고 돌아 온 7·8명의 指導的 知識人들과 新聞發刊을 計劃하여, 1920年 4月 1日에 創刊號를 發刊했다. 金씨의 信念은 民族의 獨立은 먼저 無知한 民衆을 깨우쳐야 하며, 經濟的 實力을 기르고 獨自的인 表現機關을 가져야 한다는 主旨 밑에 教育, 産業, 言論의 三大 目標을 내세우고 學校, 紡織會社, 그리고 다음으로 言論機關으로 東亞日報를 創刊했다. 金씨는 創刊號 社說에서 民族의 代辯, 民主主義, 文化主義의 三原則을 標榜했다.

한편 東亞日報 고다 한달 먼저 發刊한 朝鮮日報는 그 設立趣旨書에서 다음과 같이 宣言했다.

『우리 朝鮮人은 新文明에 落後되어 萬事가 沈衰한 中에서 하물며 戰後 大競争을 當하였다…… 他人은 社會의 改革, 生計의 發展에 鼓勇하여 一舜이 百年같이 분망하게늘…… 우리는 빨리 進歩하여야 할지라. 倫理, 道德도 進歩하여야 하며 風俗·制度도 進歩하여야 하고, 教育·學藝도 進歩하여야 하고, 一切가 進歩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우리는 이 主義의 宣傳이 있어야 하리다.』

兩紙가 다같이 文化 내지는 文明의 進歩를 多分히 抽象的으로 그 社是로서 밝히고 民族의 代辯 내지는 代表機關으로서의 矜持를 表明하고 있다.

「허버트·패신」教授는 「民族主義的 모더니스트」(Nationalist modernist)들이 그들의 새로운 理想을 展開시키기 위해서는 言論이 그들에게는 民衆啓蒙과 政治活動을 위해 緊要하다. 따라서 우리는 近代化過程의 初創期에서 부터 政治的·社會的 改革과 言論과의 사이에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發見한다고 지적했다⁽³⁾.

「독립신문」이 初創期의 「民族主義的 모더니스트」인 徐載弼박사와 그의 동료인 李承晚, 尹致昊씨 등에 의해서 發刊되었다는 것은 前述하였거니와 그들을 韓國近代化 歷史上 第1期의 役軍들이라면, 1919年의 舉族的인 3·1 민족독립운동 이후에 東亞·朝鮮등 民族紙의 창간에 공헌한, 完전한 日政下에서 「民族主義的 모더니스트」들은 第2期의 役軍들이라고 할 수 있다. 東亞日報나 朝鮮日報의 發行人, 編輯人등 幹部들은 民族文化운동의 總本山을 自處할만한 大衆의 信任과 尊敬을 받는 思想家, 文學家, 史學者, 宗教家, 教育家이거나 外國留學에서 돌아온 新進氣銳의 俊才들이 었다.

多少 誇張된 얘기는 하지만, 이들 新聞社는 日本總督府와 對等한 權威와 影響力(精神的인

(3) Herbert Passin; *Ibid.*, p. 98.

면에서)을 가진 것으로 自他로부터 看做될 정도였다 한다. 全國各地의 支局長들도 비단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로서 뿐만 아니라, 그 地方의 政治·經濟·社會·文化 全般에 걸친 PROVINCIAL OR COMMUNITY의 NOTABLE LEADER(地方 혹은 共同體의 有志)인 경우가 많았다. 韓國이 日政으로부터 解放된 이후 이들 「民族主義의 모더니스트」들 가운데는 政治的 指導者로 轉換한 사람들이 相當數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政治的 路線의 如何를 막론하고 中樞的인 地位를 차지한 者도 적지않다. 例컨대, 「독립신문」 創設者인 徐載弼은 美軍政顧問, 李承晩은 12년간의 大統領, 東亞日報 創設者인 金性洙는 副統領, 社長이던 崔斗善은 國務總理, 朝鮮日報 創設者의 한 사람인 安在鴻은 美軍政 民政長官 및 政黨黨首를 歷任하였다.

(2)

韓國의 近代化는 日本의 束縛을 벗어난 1945年을 契機로 해서 第三期 즉 獨立된 民族으로서의 主體性을 가지고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客觀的 政勢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理論的인 면에서만 그러하였다. 3年間の 美軍政과 이에 뒤따른 李承晩博士의 12年間の 專制的 政治構造, 더우기 1950年부터 겪은 韓國動亂과 그 후 오늘날까지의 빈번하게 發生하는 政治的 變動, 이에 따르는 經濟的·社會的 不安과 混亂때문에 韓國의 近代化는 그것이 傳統的으로 直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抵抗的 要素를 除去하는데 많은 困難을 겪어왔다.

이와같은 抵抗要素가운데 주요한 것들은 政治的 不安에 起因하는 國家政策의 無一貫性, 政治意識 내지는 態度的 前近代性, 產業構造의 畸型性, 經濟成長도와 國民所得의 低位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우리는 解放後 20年間に 美國 및 歐羅巴 諸國들과의 광범위하고 밀접한 接觸을 통하여 그들의 先進文化를 섭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戰後 韓國의 近代化를 위해 실질적인 刺戟이 되었으며, 특히 과거에는 日本을 통해서 歪曲된 文化產物 밖에 얻을 수 없었던 知識層의 思想內容을 풍부히 하는데 좋은 모티브가 되었다.

「매스·컴유니케이션」의 면에 있어서도 歐美 특히 美國의 影響이 급속도로 浸透해 들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言論의 自由는 法制上으로도나 社會制度上으로도나 여러나라 가운데서 日本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정도로 享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言論活動은 惡名높은 李政權下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部門보다도 客觀的으로 봐서 적은 制約을 받았다.

「미디어」의 發展面에서도 비약적인 現象을 나타냈다. 日帝時代에는 2,3個의 新聞版權과 1,2社의 映畫製作 許可가, 그것도 어느 制限된 期間동안만 韓國人에게 부여되었을 뿐, 그 밖에 數十의 新聞販權, 映畫, 그리고 1925年부터 設置된 「라디오」放送 「네트워크」 主로 OPINION·MANIPULATION(輿論造作)을 위한 目的으로 總督府 내지는 日本人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그러나, 李博士의 獨裁政治가 가장 심했던 1959年에도 韓國에는 36個의 新聞과 選舉와 같은 특별한 政治的 「이슈」가 없는 限 비교적 公正性을 띤 13局의 國營放送局, 1局의 民間放送局, 年間 109本의 영화, 5萬部를 發行하는 1個 綜合雜誌, 그 밖에 數百種에 達하는 定期刊行物이 있었다. 최근 數年間に 「미디어」의 발전은 飛躍的으로 나타나서 현재 新聞의 發行部數는 約 1백 30萬部, 19局의 國營放送局과 1個 國營 「텔레비전」放送局, 7局의 民間 「라디오」放送局, 2局

8 매스·컴 활동을 통한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知識人의 役割

의 民間「텔레비전」放送局, 3천 5백 50個의「애프」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年間 147本の 映畫를 생산하고 있다. 「텔레비전」受像機는 4만 5천臺, 「라디오」受信機 1백 73만臺, 劇場座席 34만 5천席을 헤아리고 있다. 1965年版「유네스코」調査에 의하면 韓國은「아시아」43國(植民地 및 保護國등을 포함) 중에서 人口 1백명當 新聞이 6.9部로서 第9位, 「라디오」가 4.1臺로서 第13位, TV「세트」 0.1臺로서 10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는 各國의 每人當 所得順位로 볼 때에는 韓國의「매스·미디어」는 比較的 높은 順位이다. 예컨대 每人當 所得이 비교적 높다고 자랑하는「타일랜드」「실론」「필리핀」같은 나라와 비교할 때 韓國은 이들 나라의 2倍 내지는 4倍나 많은 新聞을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受信機 所有者의 人口比도 이들 나라보다 훨씬 높다⁽⁴⁾. 그러나 韓國人의「매스·미디어」參與度가 아직 低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後進國이란 1百人當 日刊紙部數가 10部미만, 「라디오」受信機 臺數가 5臺미만, 映畫館 座席數가 2席미만인 나라로 규정되고 있는데⁽⁵⁾ 이 基準에 의하면 韓國은「매스·미디어」分野에서 아직도 後進性을 脫皮 못하고 있다 하겠다.

「리처드·R. 웨이건」教授는 新聞의 발달이 일반적으로 文字解得率 및 經濟水準과 가장 直接的인 關聯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설정했다. 그는「데이터」에 의해서 이 假說이 立證할 수 없다는 結論을 지었다⁽⁶⁾. 그러나 韓國의 每人當 所得이 1百弗에 未達하며 經濟 成長率이 2%~6%「퍼센트」밖에 안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韓國新聞의 성장은「밸런스」를 缺하였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韓國의 文盲率은 17「퍼센트」未滿이며 韓國人은 歷史的 環境하에서 배양된 높은 政治意識 특히 權力에의 抵抗精神을 가져왔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리더십」을 行使하고 있다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最近에 실시된 輿論調査에 의하면, 新聞讀者가운데 75「퍼센트」가 韓國의 新聞들은『社會的 指導性』을 行使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⁷⁾. 다른 質問項目에 대한 應答에 의하면, 情報를 신속히 入手하려는 動機에서 新聞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반면 韓國新聞들은 民衆의 政治的 關心을 充足시켜 주고 그들에게 社會生活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特徵이다.

(4)

나라	미디어	100人當 新聞部數	100人當 라디오臺數	100人當 TV 臺數	100人當 映畫館座席數	1963年의 每人當所得
한 국		6.9	4.1	0.1	0.8	\$ 90.1
실 론		3.7	3.6	—	1.9	119.1
태 國		1.4	0.6	0.6	0.5	90.8
필 리 핀		1.8	2.2	0.6	2.6	108.7

出處=World Communication, UNESCO, 1964 U.N. Statistical Yearbook, 1963

(5) Wilbur Schramm; ed.,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pp. 74~75.

(6) Richard R. Fagan;

“Relation of Communication Growth to National Political Systems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ism Quarterly*, Winter 1964, pp. 87~94.

(7) 韓國新聞研究所刊 新聞評論 第13號 『서울市 新聞독자에 관한 調査』

社會不安과 經濟的 困窮은 民衆心理를 欲求不滿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民衆의 이러한 主된 欲求에 置重하여 新聞이 NEGATIVE 한 「어프로치」로서 그러한 欲求不滿을 安易하게 일시적으로 解消시킨다면 新聞은 문제를 合理的으로 해결하여 社會發展에 公헌하는 機能을 發揮하지는 못할 것이다.

「매스·컴유니케이션」의 發展이 近代化의 指標가 된다고 하는 根據는 「매스·컴유니케이션」의 傳達內容이 傳統的인 信條, 價値, 習性, 生活樣式의 變革을 위한 目標를 제시하고, 그에 必要한 行動類型 및 새로운 價値體系를 提示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韓國新聞은 植民地時代의 民族紙들이 지녔던 高貴한 傳統을 相續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韓國新聞은 철저한 反抗精神을 「모토」로 삼음으로써 政治를 批判했고 民衆과 紐帶를 맺었다. 韓國의 新聞들은 『公平』과 『正直』을 부르짖었고, 언제나 政府에 대해서는 批判的인 태도를 보였다. 韓國의 新聞들은 대개 本能的으로 『親政府』라고 烙印적히는 데에 불쾌감을 느꼈다. 發行人과 編輯者의 個人的인 偏重의 態도와 政府 및 執政黨과의 關係에 비추어 『親政府紙』라고 인정되고 있는 新聞들 까지도 親政府的인 性格이나 立場을 표현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애썼다.

오늘날 「센세이셔널리즘」은 商業紙들이 독자들을 많이 끌기 위해 사용하는 典型的인 手段 가운데 하나인데 民衆의 비위에 맞춰 『政治的인 센세이셔널리즘』을 과거의 韓國新聞들이 사용했었는지는 疑問視된다. 과거의 新聞들이 意識的으로 그러한 戰術을 採擇했었다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言論人들은 단지 부정부패를 들어내고 惡과 과감히 싸우는데에만 만족해서는 안되며 문제해결의 實踐의 方途를 제시하는 데에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討論의 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批判에는 解決策의 提示가 뒤 따라야 한다. 그래서 現代新聞들에는 아주 새로운 形態의 「리더십」이 期待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新聞이 일시적인 民衆感情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애쓰고 그 밖에 아무일도 하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新聞은 여러가지 國家的·世界的 문제에 관한 適切한 輿論을 形成할 能力을 독자들에게 결코 提供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特性들은 韓國의 젊은 記者들의 職業的 수준이 급격히 向上됨에 따라 지난 수년간에 현저한 變動을 보았다.

韓國의 近代化와 關係해서 筆者는 韓國의 「매스·컴유니케이션」 특히 韓國新聞들이 擇한 길과 所有한 몇가지 特性에 關係 至今까지 설명했는데, 일반적으로 韓國과 共通的인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低開發諸國의 「매스·컴유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설명이 적용될지 모른다.

이 점에서 韓國知識人들이 「매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해 韓國近代化에 있어서 수행한 役割을 評價해보면, 初期의 發行人·編輯人들은 民衆啓蒙과 社會教育을 그들의 使命으로 여겼으며 傳統的 價値와 態度를 改革하고 바로 고치는데에 종사했다. 이 모든 것을 遂行하는데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洞察과 情熱은 「매스·미디어」를 韓國의 중요한 社會的 힘으로 만드는데 한 道具가 되었다. 그들은 新聞에 대한 大衆의 信賴를 획득했으며 이와 동시에 모든 知識人들을 近代化를 비롯하여 民族的·社會的 自由를 위한 「컴유니케이터」로서 動員했다. 그들의 新聞에는 거의 날마다

有能하고 尊敬받는 教授, 作家, 宗教家 「컬럼니스트」들이 記事를 썼고 신문의 「인터뷰」 對象者로서 행동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에는 大學教授들이 論說委員으로 일했다. 論說委員들의 地位는 세계 어느나라의 신문에서 보다도 높은 STATUS 를 가지고 있다. 직접 新聞製作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들의 質的水準도 「아시아」諸國 가운데 第1級에 屬한다는 것이 國際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실상 數年前부터 시작된 公開競爭試驗에 의한 記者募集에는 1百倍 이상의 경쟁을 보이는데 應試者는 모두가 大學의 上位졸업생으로 구성되고 있다. 戰後 日本의 새로운 傾向 즉 社會人文系大學 졸업생중 우등생들이 「매스·컴」에 投身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추세가 韓國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職業的 「저널리스트」들과 「LAYMAN·저널리스트」들은 다같이 韓國에 있어서 近代化의 必要性和 그 實現方法에 關한 眞摯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매스·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合理的이고 效果的으로 運營하는 것이 緊要하다는 것을 그들의 社會的 責任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가 1964년에 실시한 『韓國新聞人들에 關한 調査』(A Survey on Korean Newspapermen: their statuses and views)에 의하면 現役記者의 47.3%가 『讀者의 新聞批判意識이 높아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新聞自體에 대해서는 『「센세이셔널리즘」이 심하다』(19.6%) 『確認을 소홀히 한다』(16.3%) 『너무 黨派의이다』(11.3%) 등등의 自己批判을 꺼리낌없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將來 한국신문의 本質改善의 좋은 契機가 될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全般적으로 「저널리스트」 自身の 職業적 倫理觀의 貧困, 事物에 대한 科學的 分析力의 缺如, 思考方式의 「판넬리즘」등등이 아직도 社會現象을 充分히 COMMAND 할 水準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韓國記者에게는 共通된 課題로 남아있다.

스스로의 近代化를 推進시키고 있는 韓國 「매스·컴」이 당면한 또 하나의 艱요한 問題는 新聞經營의 近代化이다. 韓國新聞은 MASS PRESS의 Specialization 과 Professionalization 을 達成해야 할 여러가지 前提條件도 缺如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도 더욱 時急한 問題는 經營方式의 近代化이다. 거의 모든 신문사의 經營이 비밀의 「베일」속에서 주먹구구식 會計와, 資本과 經營의 未分離, 從業員과 雇傭主사이의 前近代的인 主從關係의 雇傭關係 등등이 止揚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自己矛盾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韓國社會 속에 內包되어 있는 이른바 二重構造가 「매스·컴」 自體內에 도사리고 있다.

韓國言論史 初創期의 近代化를 위한 理想, 創造的 思考方式, 그리고 新聞發行人의 指導性이 復活되고 그것들이 韓國 「매스·미디어」의 現代的인 經營속에 反映될 때 韓國編輯人과 記者들의 知的 活動에는 이나라의 近代化를 더욱 促進시킬 수 있는 보다 좋은 機會가 주어질 것이다.